

소공동체 모임순서 (복음나누기 7단계)

- + 성호경
- + 이달의 시작 성가 (91장)
- + 출석확인파 인사 나눔
- + 소공동체 기도문
- + 복음 나누기 7단계 (이달의 복음: 루카 3,1-6)

1단계 : 주님을 초대한다.

- 한 두 분이 기도로 예수님을 초대해 주십시오.

2단계 : 성경 본문을 2번 읽는다.

- ...복음 ...장을 펴주십시오.(참가자들이 본문을 찾을 때까지 기다린 후)
- 어느 분이 ...장 ...절에서 ...절까지 천천히 읽어주십시오.
-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읽어 주십시오.
- 각자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구절을 새기며 고요히 되눕니다.

3단계 : 성경 본문 중에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구절을 외친다.

- 각자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짧은 구절을 세 번씩 외쳐주십시오.
- 어느 분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4단계 :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는다.

-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듣도록 합시다.

5단계 : 각자의 마음속에 들려주신 말씀을 나눈다.

- 순서 없이 자유롭게 각자의 마음속에 들려주신 주님의 말씀을 나눕시다.
- ※ 나누기가 끝난 후 “함께하는 복음 묵상”을 읽는다.

6단계 : 무엇을 해야 할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누고, 실천을 다짐한다.

- 지난 달에 공동체(각자)가 정했던 실천 사항을 어떻게 실천했는지 나누어 봅니다.
- 이번 달에는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각자)에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보고, 실천할 수 있는 것을 정합니다.
- ※‘말씀이 우리와 함께’를 공부하고, 공지사항, 건의사항, 차기장소 결정을 한다.

7단계 : 자유롭게 기도한다. (손을 잡고~)

-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 + 소공동체가
- + 영광송 및 성호경

진행자가 기억해야 할 사항

- ① 복음나누기 7단계에 제시된 그대로(“한 두 분이...”) 각 단계를 읽어주십시오.
- ② 참가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가급적 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 3단계, 5단계에서는 진행자도 할 수 있으나, 첫 발언자가 되지 말고 다른 사람이 먼저 발언하게 하십시오.
- ③ 마지막 발표자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발언하게 되면 진행자가 마치 정답을 주는 사람으로 여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④ 참가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격려하십시오.
- ⑤ 각 단계에서는 참가자들의 참여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느긋하게 기다리십시오.

함께하는 복음 묵상

루카 3,1-6

오늘 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 파견된 세례자 요한이 사람들에게 구세주 예수님을 합당히 맞이하기 위해 회개의 세례를 받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성탄을 합당히 맞을 준비를 하며 대림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모두는 하느님 앞에 나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며 진정으로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진정한 회개를 동반한 고해성사야말로 하느님의 용서와 자비를 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의 작품 중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사제에게 두 여인이 고해성사를 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한 여인은 자기는 '살인'이라는 대죄를 지은 중죄인이라며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잘못을 사제에게 고백하면서 하느님의 용서를 청하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여인은 눈물로 대죄를 고백하는 여인을 경멸하는 눈초리로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은 자질구레한 소죄는 여러 가지 저지르기는 하였지만 평생 '절도와 강도, 살인'들과 같은 대죄를 한 번도 짓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죄에 대해 뉘우치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사제는 두 여인에게 각각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먼저 대죄를 고백하며 눈물을 흘리는 여인에게 "당신은 당신이 들 수 있는 가장 큰 돌덩어리를 가져오시오." 그리고 사제는 이번에는 일생동안 이렇다 할 큰 죄를 지은 기억이 없다는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자디잔 돌맹이를 치마폭에 가득 주워 오시오." 한참 후에 두 여인은 사제가 시키는 대로 하여, 한 여인은 커다란 바윗돌을 킁킁거리며 옮겨 왔고, 다른 여인은 새알만한 잔돌을 치마폭에 가득히 주워왔습니다. 여인들이 돌을 주워오자 사제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미안하지만 이번에는 그 돌맹이들을 제 자리에 갖다 놓고 오시오." 큰 바윗돌을 가져온 여자는 그것이 어디서 가져온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킁킁거리며 바윗돌을 제 자리에 가져다 놓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새알만한 잔돌을 치마폭에 가득히 주워온 여인은 자신의 치마폭에 있는 그 많은 돌들이 제 각각 어디에 있었는지 기억할 수 없었기에 어찌할 바를 몰라 찢찢매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거요!" 사제가 외쳤습니다. "하느님께 지은 죄도 바로 이런 것이요." 사제는 일생 동안 별로 큰 죄를 짓지 않고 자질구레한 잘못만 저질렀다는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하루하루 이러저러한 많은 죄를 지으면서도 하느님께 죄책감 없이 일생을 살아왔고, 당신은 많은 죄를 짓고도 회개 한 번 하지 않았기에 당신 치마폭의 돌들처럼 당신의 죄는 그대로 남아 있소. 그러나 이 여인은 큰 죄를 짓고 이렇게 통회하고 자책하고 있으니 이 여인에게 하느님의 은총이 함께하실 것이며 하느님께서도 이 여인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하셨소."

예수님께서 '바리사이와 세리의 비유'(루카 18,9-14)를 통해서 하느님 앞에서 당당히 자신을 내세운 교만한 바리사이는 하느님 앞에 죄인으로 남았지만, 하느님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느님의 용서를 구한 세리는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 하느님 앞에서 의인이 되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느님께 많은 죄를 짓고 사는 죄인들이기에 고해성사를 통해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느님의 용서를 청해야 합니다. 그런데 口냥은 이들이 고해성사를 보면서도 진정한 회개 없이 건성으로 고해성사를 보기에 위에 나온 치마폭에 새알만한 돌을 가득히 안고 어쩔 줄 모르는 여인과 같이 하느님의 용서를 받지 못하고 하느님 앞에 죄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 모두 루카 복음에 나오는 '세리' 또는 위에 나온 자신이 지은 죄를 진정으로 뉘우치고 참회의 눈물을 흘리는 '여인'처럼, 고해성사를 볼 때 하느님 앞에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우리가 저지른 크고 작은 죄들에 대해 진심으로 회개하며 하느님의 용서를 구함으로써 하느님께로 부터 의인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수원교구 12월 나눔의 소공동체지에서 발췌)

공지사항

- ※ 대림시기와 성탄 판공성사를 진정한 회개의 마음으로 준비하여 더 기쁜 성탄을 맞이합시다.
- ※ 성탄 세례, 견진식에서 새롭게 주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새 교우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말씀이 우리와 함께"

◆ 신명기의 구조

오경의 결론 부분인 신명기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 죽음을 눈앞에 둔 모세가 그동안의 긴 여정을 회상하며 앞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갈 다음 세대들에게 당부의 제언을 전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모세의 첫째 설교 (신명 1,1-4,43)	역사적 회고(호렘에서 모압에 이르기까지)
모세의 둘째 설교 (신명 4,44-28,69)	법령 규정들에 대한 해석, 신명기법전(12-26장)
모세의 셋째 설교 (신명 29-30장)	선택-계명을 성실히 받아들이라는 격려
모세의 죽음 (신명 31-34장)	모세의 마지막 축복과 죽음

◆ 이 달에 읽을 말씀: 신명기 1-4장 43절

1. 신명기 1,29-33을 읽고 다음 ()안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

그들을 무서워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마라. 너희 ()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가 () 이집트에서 하신 것과 똑같이 너희를 () .
 너희는 마치 사람이 (), 주 너의 하느님께서 너희가 이곳에 다다를 때까지 걸어온 그 모든 길에서 줄곧 너희를 () 광야에서 보았는데, 그 광야에서도 그렇게 싸워 주셨다. 그런데도 너희는 주 너희 하느님을 () .
 너희가 천막을 칠 곳을 (), 또 너희가 갈 길을 (), 밤에는 ()속에서, 낮에는 ()속에서 () 주님을 너희는 믿지 않았다.

2. 신명기 3,23-28을 읽고 다음 물음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

모세 : 주 하느님, 주님께서 이제 당신 종에게 당신의 위대함과 당신의 뛰어난 능력을 보여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부디 저를 건너가게 해 주시어, 제가 요르단 건너편에 있는 () 보게 해 주십시오.

주님 : 그만 됐다. 더 이상 이 일로 나에게 말하지 마라. 너는 이 ()을 건너지 못할 것이다. 너는 여호수아에게 ()을 맡겨라. 그에게 () 복돋아 주어라. 그는 이 백성 앞에 서서 ()이며 이 백성에게 네가 보는 땅을 상속 재산으로 () .

3. 신명기 4,32-40을 읽고 맞는 답에 (O) 표시를 틀린 답에 (X) 표시를 하시오.

- 이스라엘 백성을 온갖 시험과 표징, 기적, 전쟁과 공포, 다른 민족 가운데에서 데려오려고 애쓴 신은 오직 하느님밖에 없다. ()
- 하느님은 이스라엘의 조상들을 사랑하셨으므로 그 후손들을 선택하셨다 ()
- 하느님은 바빌론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큰 힘으로 이끌어내셨다. ()
- 하느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들이 다른 민족보다 지적으로 우수하였기 때문이다. ()
-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은 하느님 외에는 다른 하느님이 없음을 알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며 하느님의 규정과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

◆ 말씀과 생활 나누기

신명기의 신학적 메시지는 한 분이신 하느님, 하나인 백성, 하나인 전례, 축복과 저주라는 주제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사랑이 크고 신실한 만큼 이스라엘 역시 당신과의 관계에 신실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메시지는 구약 시대를 넘어서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하느님께 대한 '나의 신실함'**은 무엇이며, 나의 삶 속에서 어떤 형태로 표현되고 있는지 또한 하느님께 신실함을 드리기 위해 무엇을 노력하고 있는지 잠시 묵상하고 서로 나눠 봅시다.

소공동체 기도문

○ 하느님 아버지,
저희를 불러모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저희가 모였사오니 여기 모인 모든 이들과 이 가정에 강복하여 주십시오.

● 주님, 저희는 오늘 소공동체 모임에 모여 열심히 기도하고 부지런히 공부하며 이웃 사랑을 실천하려 합니다.

○ 주님께 청하오니 저희와 함께 하시어 엘마오 제자들에게 하신 것같이 저희에게도 이루어 주십시오.

● 당신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빵을 나누듯이 나눔의 생활을 할 때마다 저희의 영적 눈이 밝아져 저희와 함께 계신 주님을 알아 뵈게 하여 주십시오.

○ 문을 닫아걸고 무력함과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 주신 주님, 저희에게도 성령을 보내 주시어 기쁨과 확신에 넘쳐 주님을 전파하며 주님을 위하여 고통을 받는 것도 기쁨으로 알게 하여 주십시오.

● 그리하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느님께 영광과 찬미를 드리며 이웃 사랑을 실천하여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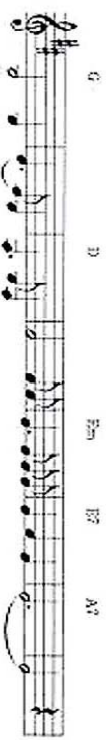
소공동체가

정수
정현
현 작곡
서정

기도하며...



하느님 백성 자녀들아! 모두 모여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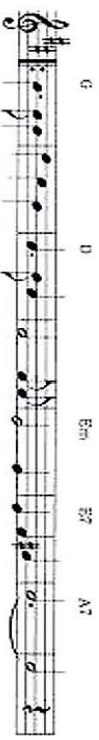
우리의 삶은 주님의 것 함께 노래하자 열려야 -



종교하고 봉사하자 세상 모두에게 -



마음 모아 기도하고 함께 나가자 천국으로 -



하느님 사랑이 가득한 곳 우리 구 역 반공동체 -



하느님 사랑이 넘치는 곳 우리 구 역 반공동체 -